25년간 5억여원 기부 장흥 장어양식업 이성현씨

"나를 기부천사로 만든 건 어릴적 지독한 가난"

"기부하고 나면 마음이 어찌나 마음이 편하던지 이 때문에 사업이 오히려 잘되는 것 같아요. 아마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생각만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반평생을 묵묵히 어려운 이웃과 각종 사회단체 등에게 선행을 하고 있는 '기부천사'가 있다. 주인공은 장흥의 기부천사로 불리는 이성현(54·장흥군 관산읍 산동마을)씨.

지난 1987년부터 마을에서 장어 양식업(삼산양만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25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금액만 5억원이 넘는다.

기업의 사장도 아닌 양식업을 운영하며 틈틈이 기부한 게 수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최근에는 남초등학교 학군 관할 삼산리 1·2·3구 외동리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정남진장학재단'(준비위원장 이성현)을 만들어 1억원을 선뜻 내놓기도 했다.

장학재단은 우수학생,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물론 생활스포츠 ·문화공간인 '정남진관'을 짓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게 아닌 아끼고 쓰지 않으면서 조금씩 모은 돈을 드리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씨는 '정남진장학재단' 측에 1억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한 지난 2002년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에 6천만원, '국제로타리 RI본부' 미화 5천달러, 광주지검 장흥지청 산하 '탐진장학회'에 3천500만원을 내놓는 등 장학금만도 2억원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노인당, 학교 등 각 기관·사회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내놓은 장학금과 위로금을 합치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단체를 가도 기부자 명단에 이씨의 이름이 적혀있는 등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부가 생활 속에 체득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받은 노인들이 비석까지 세우기도 했다. 관산읍 남노인정은 이씨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 고맙다며 '크게 칭찬할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긴 '송덕비'를 노인정 앞뜰에 세웠다.

또 주위 사람들은 '어진 양처럼 덕을 베풀라'며 이씨의 호를 '덕양'이라고 지어주기도 했다.

이씨는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가난 때문에 다니고 싶은 학교에 다니지 못해 항상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계속 추진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전주언 서구청장 선진보육 강의

광주 마스터브레인이 주최하는 서구 어린이집 원장·교사 직무교육이 지난 25일 송원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주언 서구청장은 선진보육과 행정에 대한 강의를 했다.

조선대 WISE광주·전남센터 여중생 캠프

조선대학교 WISE광주·전남지역센터(센터장 김선아 교수)가 최근 주최한 '제8회 WISE 여중생 캠프'에 참가한 60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실험을 하고 있다.

10년 동안 이어온 100원의 힘

매일 100원씩 모아 이웃사랑 광주 '100원회'
중·고·대학생 742명에 장학금 1억 지원도

"지금 시대에 100원은 너무나 하찮지요.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매일 100원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아이들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100원짜리 동전을 매일 모아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100원회'라는 아주 작은 모임의 회원들이다.

25일 광주시 서구 마륵동에 있는 양재경(68)씨의 낡은 한옥 단칸방에 반가운 이들이 찾아왔다.

100원회 회장 김희만(62)씨와 총무 장길수(48)씨다. 14년 전 고향 영광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성대를 다쳐 목소리를 잃고 거동도 어려워진 양씨를 지난 10년간 가족처럼 돌봐온 두 사람이다.

이날도 100원회 총무 장씨는 양씨 집에 들르자마자 집에서 싸 온 김치 반찬으로 정성껏 밥상부터 차렸다. 말을 할 수 없는 양씨는 이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연방 치켜들었다. '최고'라는 뜻.

'100원회'는 매일 100원씩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작은 뜻'을 담아 지난 1999년 광주에서 결성됐다. '어떻게 하면 벼랑 끝에 내몰린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김 회장은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누구에게나 100원은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 것이다.

김 회장은 곧장 생활정보지에 '하루 100원으로 불우이웃을 도우실 분'을 모은다는 한 줄 광고를 냈고, 이 작은 호소는 의외의 호응을 몰고 왔다.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더니 이듬해 4월에는 광주에 사는 60여 명이 아예 '100원회' 창립 모임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첫해에 370만 원이 모였다.

100원회 김희만 회장과 장길수 총무가 광주시 서구 마륵동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3년 후부터는 연간 기부액이 1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진 돈으로 올해까지 중·고생과 대학생 742명에게 총 1억155만 원의 장학금을 줬고,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비와 생활비로 도 1천3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또 노인 585명에게 영정을 만들어 주었다.

김 회장은"우리 모임은 금액과 기부방식 대신 '하루 100원'이라는 정성을 강조한다"며 "형편이 좋을 때는 더 많이, 형편이 나쁠 때는 조금 적게 하다보면 끝까지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게 모임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재규경찰학원-동부서 경찰 꿈나무 육성 협약

김재규경찰학원(원장 김재규)과 광주 동부경찰서(서장 김진희)는 최근 경찰 꿈나무 인재육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장학생 2명을 선발,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재규경찰학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경찰공무원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동부경찰서에서 매년 2명씩 추천, 선발해 1년간 학원 수강료와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재규 원장은 "경찰의 꿈은 있지만 집안 형편상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해 그 꿈을 이룰수 있도록 동부경찰서와 김재규경찰학원이 서로 협력해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故 고미영씨 꿈, 연인이 이룬다

김재수씨 유해 사진 들고 히말라야 3개봉 등정키로

고(故) 고미영〈왼쪽〉씨가 '연인' 김재수(46·오른쪽) 원정대장의 가슴에 안겨 히말라야의 나머지 3개 봉을 오른다.

김 대장은 "(히말라야 8천m 고봉 14좌 완등은) 코오롱스포츠 챌린지팀 소속으로 진행한 것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지 않다"며 자신이 직접 고인의 영혼이나마 정상으로 안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오빠인 고석균(43)씨도 "그동안 함께 등정했던 만큼 미영이를 위해서라도 김 대장이 남은 3개 봉을 직접 오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인의 유해는 히말라야 고봉 정상에 묻히지는 않는다. 유해를 흩뜨려서는 안 된다는 주변의 권고를 가족들이 받아들여 고인의 유해를 찍은 사진만 정상에 묻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성 용정중, 美 루쓰멀닥스쿨과 교류 협정

보성 용정중학교(교장 황인수·왼쪽에서 4번째)는 지난 24일 교내에서 미국 미시간주(州) 앤드루 대학(Andrews University) 부설 루쓰멀닥스쿨(Ruth Murdoch school)과 '학생 및 교사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어린이재단에 '몸속탐험전' 초청권 전달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최삼영·사진 왼쪽)는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몸속탐험전 주관사 (주)대륙인섹트로부터 결식아동지원금과 아동초청권 2천장을 전달받았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26회 동창회(회장 이형선) 월례회=27일(월) 오후 7시 상무지구 쏭스부대찌개. 062-382-0778.

▲북성중 제27회 동창회(회장 윤영천) 월례회=27일(월) 오후 7시 장어나라. 062-571-728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

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복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2009년 제4기 윈드서핑 강좌=8월1~31일까지 무안군 현경면 '광주전남요트학교 교육장', 문의 광주전남요트학교(062-514-7955)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습관성 도박(경마, 인터넷 도박, 사행성 오락게임, 주식 등) 관련 전문상담 치료실시=본인 및 직계가족 포함. 상담치료와 입원치료 전액무료. 전문심리상담가와 임상전문가가 직접 상담. 광주심리상담연구소. 062-527-3400, 3403.

모집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 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1-9440-2512.

▲선원·양어장·양식장 일하실 분 모집=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광주은행 365코너 옆, 월급제(일당 10~15만원), 초보자·경험자 우대. 062-681-7770.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 모집= 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다이어트 계모임 회원 모집=월 2회 모임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35~55세 일곡·상무·문흥·봉선·첨단지구 선착순 6명. 010-2425-4408.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독서치료사- 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 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시, 강사- 시인·아동문학가·심리상담지도사 김성구 박사, 문의 평생교육원(062-670-2167, 2168)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오카리나 회원 모집= 매주 목요일 주1회(3개월) 건강타운복지관 1층, 광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062-603-8860~71.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 수시모집=서구지회(018-645-2631), 남구지회(010-8000-6320)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 회원 수시모집= 페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백운선 다이빙스쿨 회원 수시모집= 잠수교육, 스킨스쿠버다이빙. 062-671-9918.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시계·베게·주차중·방석·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광주시 생활체육야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 모집=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맘보퓨엔터 살사동호회 회원 수시모집=충장로 3가 충파 앞 더바디샵 지하, 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골드윈 여성 팝스 중창단 모집=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넘치는 여성으로 공연활동이 가능한 분. 문화예술연대 '누림' 011-638-0141.

부음

▲김일순씨 별세 조만기(전 국민은행기업금융 지점장)·동회(자영업)·명석·명자·성자·행숙·정재(국민은행 계장)씨 모친상 이정신(화순중 교사)·김진경씨 시모상=발인 28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천종계씨 별세 세옥(중흥골드스파리조트)·세정·수복·순복·순희씨 부친상 김하식(조선이공대)씨 빙부상=발인 28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일용씨 별세 영환·성열·종화·대은씨 부친상=발인 28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선종근씨 별세 계룡·혜경·해자씨 부친상=발인 27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조아무씨 별세 정육호·기호·정임씨 모친상=발인 27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배양춘씨 별세 승산·수자·명자·연심씨 부친상=발인 27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